

시골빛 물감

차원재 지음

셀터/A5/206면/2200원

‘개미할아버지’는 20년만에 귀국한 아들식구와 함께 서울에서 살게 된다. 무미건조한 도시생활에 싫증을 느끼던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재미있는 옛날얘기와 시골생활을 들려 주면서 즐거움을 되찾는다는 「시골빛 물감」 외에, 「꽃병이 놓인 동물원」 「일곱번째의 생일」 「인형을 실어 온 편지」 「풀꽃 목걸이」 「꽃씨 할아버지」 「메아리」 「돌고래」 「동물회의」 「돼지의 꿈」 「장난감 교향악」 등 11편이 수록되어 있다.

지은이는 현재 봉은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며, 동양화가 최연희씨가 삽화를 그렸다.

누나를 기다리며

전수만 지음

지경사/A5신/160면/1800원

시골소년 수만의 시와 산문 모음. 중풍으로 고생하는 아버지와 한쪽 눈을 실명한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면서도, 가난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글을 쓴 전수만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글짓기대회에서 무려 190차례나 입상했다.

다섯살 때 열살짜리 작은 누나와의 기차놀이, 낯선 사람을 따라 가기 싫은 길을 떠난 누나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쓴 글, 효성심의 중요성을 말하는 글들에서 친진하면서도 어른스러운 어린이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수만군은 현재 전남 영암 삼호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

우리들만의 비밀

한국아동문학연구소 엮음

신원문화사/A5신/244면/2300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산촌 등 여러 곳에 살고 있는 80여명의 어린이들의 때묻지 않은 목소리를 엮었다.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에게 하고 싶은 말, 행복한 집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담겨 있다.

‘엄마는 나보다 시험지가 더 중한지보다. 내가 시험을 잘못 보았을 때는 사랑스러웠던 엄마의 얼굴이 호랑이 얼굴로 변하시고, 꽃같이 곱고 아름다운 손도 가시가 있는 회초리로 변해서 나를 매우 꾸짖으시니까. 그러면 아예 시험지를 아기로 삼지 뭐.’

-「엄마, 나보다 시험지가 더 중하지?」중에서

꽃마음

심경석 지음

아이큐박스/A5신/92면/1500원

자신의 센 힘만을 믿고 싸움을 일삼던 거인나라의 보보와 모모가 난장이 나라로 쫓겨가, 그 나라를 꽃나라로 만들어야만 돌아올 수 있다는 명령을 받는다.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꽃을 심고 가꾸던 보보와 모모의 마음 속에 서로 돕고 아끼는 마음이 싹튼다는 「꽃마음」 외에, 버스집에서 사는 훈이의 이야기 「움직이는 집」, 사냥꾼의 애용품 장갑을 소재로 한 「개미와 장갑」이 실려 있다.

다채로운 이규경씨의 그림이 눈길을 끈다.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한 동화집.



탐험가 난센

민병산 지음

창작사/B6/224면/1500원

노르웨이의 탐험가 프리초프 난센의 일생을 그린 위인전기.

1861년 10월 10일 아켈 강 계곡의 슈트레 플렌에서 태어난 프리초프는 탐구심이 많은 소년이었다. 특히 연장놀이를 좋아해서 무엇이든지 분해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 오슬로 대학에서 해양학을 공부한 그는 1882년 3월 11일 고기잡이배 바이킹호를 타고 바다를 탐험, 1888년에는 세계 최초로 그린란드 횡단여행을 성공리에 마친다. 하지만 그의 모험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북극여행을 시도, 1893년 난센은 드디어 프람호를 타고 미지의 세계 북극을 향하여 출발한다.

창비 아동문고 94.

한국 위인전

김모세 엮음

민서출판사/A5신/402면/3500원

일화로 엮은 134인의 위인전. 단군왕검, 박혁거세, 동명성왕 등 고대인물에서부터 김구, 안중근, 방정환, 윤봉길 등 현·근대인물에 이르기까지 연대순으로 위인들의 일화·업적을 살폈다. 관련지도와 연표, 기타 사진자료를 함께 수록해, 사회과목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어느 해 여름, 훈장계서 앞마당의 오동나무를 가리키며, 모두에게 말했다. “저 나무에 달린 잎사귀가 몇 잎인지 가장 먼저 알아맞히는 사람한테는 상으로 엿을 줄 테다.”... 이때 홍대용은 몇 번 눈알을 굴리더니 대뜸 몇 잎이라고 외쳐대었다.’

-「위대한 과학자·천문학자·수학자 홍대용」중에서

미야가 오르는 길

박순녀 지음

가톨릭출판사/A5신/176면/1900원

작은 시골마을의 국민학생 미야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엮었다. 어렴풋한 할머니 추억, 가족사진을 찍은 날, 경마장에 나타난 곰 소동, 명절놀이, 도회지로의 이사, 학교생활, 여동생의 죽음, 중학교 진학에 이르기까지 한 소녀의 성장과정을 차분하면서도 정감있게 엮었다. 여류작가 박순녀씨의 소년소설.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꿈속에서 모두 보았다. ... 그리고 ‘미야야-’ 하고 화를 낸 미혜도 만났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꿈에도 한번 나타나지 않아서 야속했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법 기운이 있는 미혜를 보았다. 미혜야, 나 오늘 졸업해. 그리고 중학생이 된다. 나 너하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어. 어른이 돼도 잊지 않을 거야.’

-본문 중에서

거인과 소녀

배익천 지음

씨레/A5/184면/2200원

멀고 먼 바다에 있는 작은 섬. 이 섬에는 물만 먹고 사는 거인, 불만 먹고 사는 거인, 돌만 먹고 사는 거인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어느 날 세 거인은 바닷가로 떠밀려 온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정성껏 돌본다. 그러나 아이는 할머니와 부모가 그리워 또 다시 뗏목을 타고 섬을 떠난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에서 숨겨 있는 아이를 발견한 세 거인들이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다는 「거인과 소녀」 외에 「목마를 타고 간 아이」 「꽃을 잃은 지리산」 「나비와 풀꽃」 「마음에 단 꽃등」 등 23편의 창작동화들이 실려 있다. 최준식 그림.

맹렬 어머니와 여섯 아이들

엘시 록 지음/정돈역 옮김

상상각/A5신/200면/2000원

뉴질랜드 개척시대를 용기와 사랑으로 살아간 한 가족의 실화.

맹렬 어머니 메리 엘리자베스 스몰은 여섯 아이들을 데리고, 술주정꾼 남편을 피해 호주로부터 뉴질랜드로 건너간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캐시미어 목장에 도착한 일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된 노동과 험한 자연환경.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카바나즈 만에 아담한 오두막집을 세우고 개척농장을 가꾸어 나간다.

원주민 마오리 족과의 만남, 이국적인 자연풍물, 여섯 아이들의 서로 돕는 마음과 모험이 흥미롭다. 사진자료도 함께 수록.

꿈을 따는 아이들 상·하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엮음

중앙문화사/A5신/각권 220면/각권 1500원

1987년도 한국 아동문학 우수작품 166選.

겨울내내 산골짜기 웅덩이에서 뽕뽕 언 채로 봄을 기다리던 물방울은, 따스한 봄 햇살에 얼음이 녹으면서 신나는 여행을 시작한다. 지난 가을 소풍 때 환이가 잃어버린 운동화 한 짝을 만난 물방울이 노루의 도움을 빌어 바위 틈에서 운동화를 구출, 환이가 사는 동네를 향해 함께 여행한다는 「어느 산골 이야기」를 비롯, 다양한 단편동화와 동시들을 수록했다.

작품마다 지은이의 사진과 약력을 첨부했다. 이남구 그림.

감꽃 목걸이

이영호 지음

예림당/A5신/98면/1800원

어머니가 만들어 준 하얀 감꽃 목걸이를 친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는 「감꽃 목걸이」를 비롯, 원숭이해를 맞은 아기원숭이 뽀뽀의 이야기 「고향으로 간 뽀뽀」, 그밖에 「풀 가지」 「선생님의 얼굴」 「행복을 찾는 살쥘이」 「오줌싸개 소동」 「돼지가 학교가는 날」 수록. 김박, 양후영 그림.

“목걸이야. 감꽃 목걸이.”

병인이는 더욱 가슴을 젖히며 자랑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조무래기들은 병인이 주위에 비잉 둘러섰습니다. “감꽃 이거 참 맛있다. 병인아, 나 좀 줘 응?” 정난이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병인이는 정난이와 목걸이를 잠시 번갈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감꽃 목걸이」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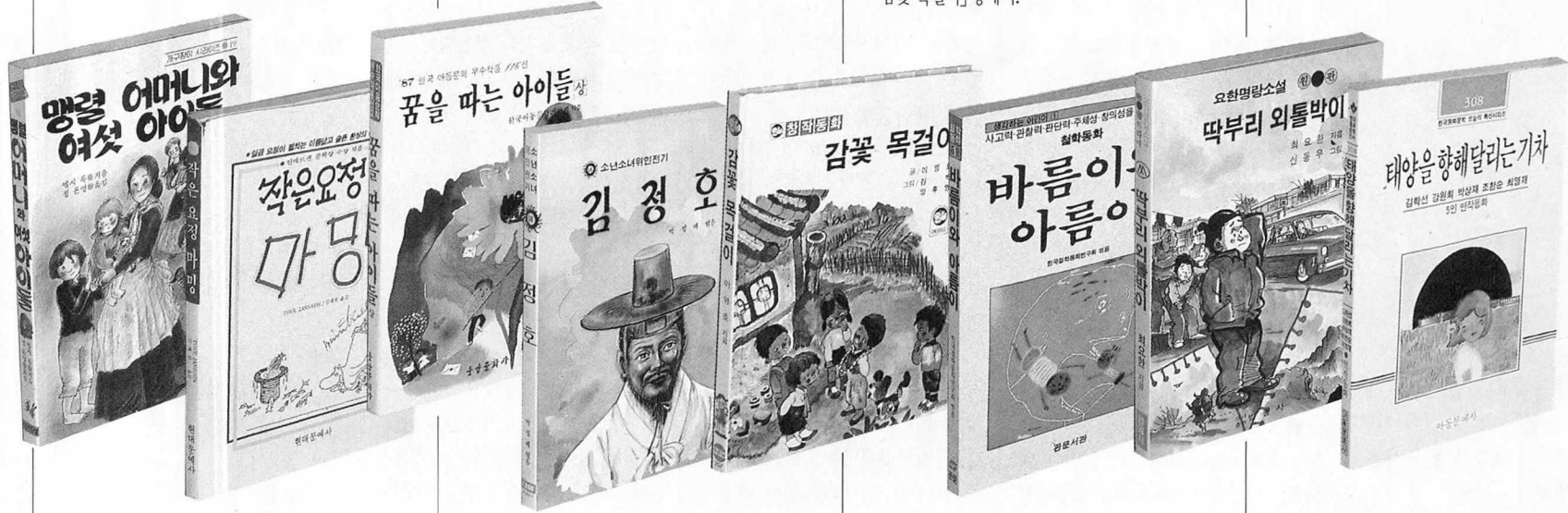
딱부리 외톨박이

최요한 지음

범왕사/A5신/264면/2500원

새로 전학온 이상한 아이 딱부리. 눈은 크고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만은 순하다. 친구도 없고 외롭기만 하던 외톨박이 딱부리가 차츰 친구를 얻게 된다는 「딱부리 외톨박이」를 비롯, 의로운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소년의 우정을 그린 「아파도 웃는다」,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어 주는 구슬이야기 「잃어버린 구슬」이 실려 있다.

학교와 집을 중심으로 한 소년들의 모험, 정감, 따뜻한 우정을 주제로 한 명랑소설. 신동우 그림. 전체 원색삽화.



작은요정 마밍

토브 안손 지음/김재천 옮김

현대문예사/A5신/210면/2500원

아담한 몸집에 털이 보송보송 나있는 부끄럼쟁이 요정들 마밍. 핀란드 숲속에 모여 사는 마밍들 중에서도 마밍트로는 호기심 많은 꼬마요정이다. 어느날 마밍트로는 친구들과 함께 산꼭대기에서 모자 하나를 줍게 되는데, 이 모자 안에 물건을 넣어 두면 무엇이든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고 만다. 도깨비 모자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신기하고 무서운 경험들, 전혀 다른 종족 하이티와의 만남, 태풍 속의 모험, 소녀 요정 스톱크 메이든과의 사랑 이야기 등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겨울나기를 하는 요정가족의 봄, 여름, 가을의 생활을 환상적으로 그린 동화.

1966년 안데르센 문학상 수상작품.

김정호

박성배 엮음

대일/A5신/238면/2000원

1802년 황해도 신천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김정호. 멀고 먼 고장에 대한 호기심, 뛰어난 손재주를 지닌 김정호는 지도그리기에 몰두한다. 본격적인 지도공부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 규장각에서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손에 넣게 되나 그 부정확성에 실망을 느낀다. 그는 스스로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게 된다. 여행 중에 겪은 외로움, 눈보라 속에서의 위험, 산적과 호랑이와의 만남 등 갖가지 고생을 극복한 끝에, 김정호는 드디어 「청구도」 「만국경위지도구」 「대동여지도」 등을 완성하지만... 지도제작의 선각자 김정호의 생애를 그린 위인전. 소년소녀 위인전기 59.

바름이와 아름이

한국철학동화연구회 엮음

관문서관/A5신/230면/2500원

미국 아동철학개발원(IAPC)에서 국민학교 저학년 철학교재로 개발해 낸 Kio & Gus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직 교사들이 새롭게 엮은 제1단계 철학 교육용 교재.

이 책에 나오는 아름이는 앞은 못보지만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는 여자아이. 바름이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아름이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동물이나 사람, 말과 행동, 두려움과 용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진실과 아름다움에 관해 두 아이는 자세히 대화를 나눔으로써 새로운 사실들을 배워 나간다.

학부모와 일선 교사의 교육에 도움을 주는 철학동화.

태양을 향해 달리는 기차

김학선·강원희 외 지음

아동문예사/A5신/194면/2200원

현직 교사와 동화작가 5인의 연작동화집. 삼일국민학교에 재학중인 고민소. 야구에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민소는 학교 야구단의 유일한 여자선수다. 그녀는 경쟁 팀인 풍일국민학교 야구단과의 경기에서 4번 타자로 활약, 역전승을 거둔다.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신문과 우유배달로 열심히 생활하던 민소는 삼일탐정대 친구들의 도움으로 소식없이 떨어져 있던 아버지 어머니를 마침내 찾게 되는데... 들쭉날쭉 강인하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한 소녀의 착한 마음씨와 우정을 그린 이야기. 한국동화문학 오늘의 특선 시리즈.